

아이뉴스24

bda "경기침체도 중국, 인도 시장 성장은 못 막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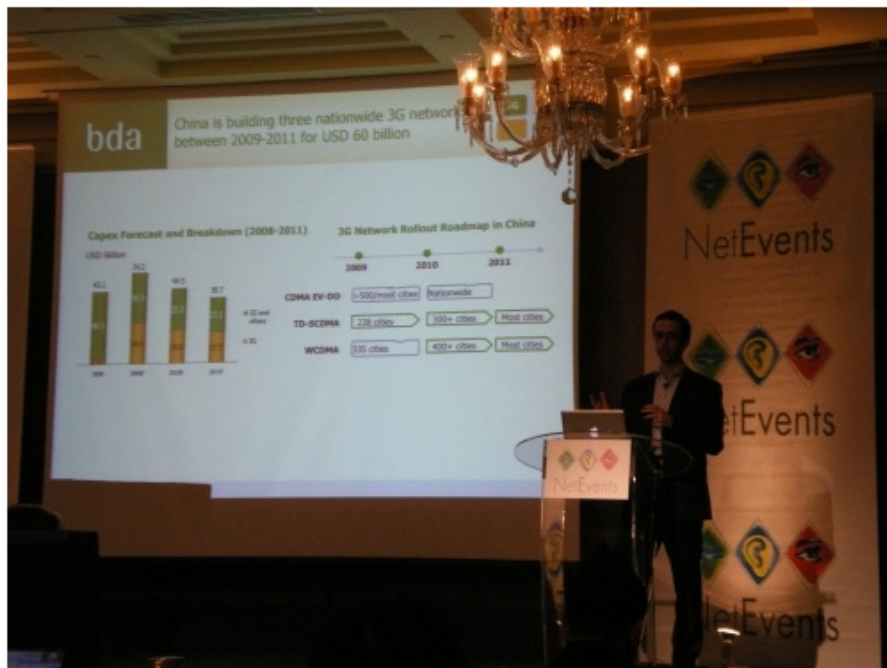
"화웨이 5년안에 유선 1위, 무선 2위 자리 굳힐 것"

명진규기자 almach@inews24.com

시장조사기관 bda가 올해 상반기 시장 조사 결과 경기침체도 중국과 인도 시장의 성장은 가로막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bda는 19일 싱가포르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2009 넷이벤츠'에서 '위기 속에서 찾는 기회'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갖고 5년안에 중국 네트워크 업체 화웨이가 유선 시장서 리더, 무선 시장서 2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드 딘 bda리서치 회장은 "올해 통신 장비 업계는 한마디로 우울했다"며 "유럽 통신사의 경우 시설 투자 비용을 평균 20~30% 가까이 줄였으며 남미 25% 감소, 일본 3%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bda가 화웨이가 5년안에 세계 통신 시장 유선 1위, 무선 2위 자리를 굳힐 것이라고 전망했

하지만 경기침체도 중국과 인도 시장 성장은 못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드 딘 회장은 "경제 위기도 중국과 인도 시장 성장은 못 막았다"며 "차이나 모바일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이익이 8.9% 가량 늘었고 인도 시장서 통신 서비스 가입자도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테드 딘 회장은 화웨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화웨이는 계약 기준 매출 157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28%가 늘었다. 하반기 매출 목표는 300억 달러에 달한다.

bda는 화웨이의 성장 요인으로 ▲중국 3G(3세대) 서비스 시작 ▲LTE 및 광 기술의 본격화 ▲정부측의 재정 지원 ▲통신사 비용 절감으로 인한 화웨이의 상대적 수혜 등을 손꼽았다.

중국은 현재 3G 서비스로 CDMA EV-DO, TD-SCDMA, WCDMA 3가지를 준비 중이다. 오는 2011년까지 총 600억 달러가 투자된다. LTE와 광 기술인 PON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도 화웨이의 성장에 한 몫 했다.

특히 통신사가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경쟁사보다 제품 가격이 저렴한 화웨이의 제품 판매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중국내 통신사의 시설투자비도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542억 달러를 기록한 중국내 시설투자비는 2010년 443억 달러, 2011년 387억 달러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테드 딘 회장은 "화웨이 역시 향후 5년 동안은 시설투자 감소,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에릭슨을 넘어서기는 어렵겠지만 노키아지멘스를 넘어서 통신 장비 시장 2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들의 시설 투자 감소, 이익율의 감소, 여전히 부족한 프로페셔널 서비스, LTE 분야에서 에릭슨과의 경쟁 심화 등이 화웨이 성장의 부정적 요소"라고 말했다.